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화학산업과 환경의 상관관계

화학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국내 화학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화학산업이 수십년 수백년의 전통을 가지고 고유의 문화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전세계적으로도 경영능력과 생산·응용기술이 뛰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생산능력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기초기술이 타국이나 선진기업에 비해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고—아니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열세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지만—그렇다고 응용기술의 개발연구가 선후진국을 모두 추월할 수 있는 지경에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게는 기초기술이 뒤지고, 후진 개발도상국에는 인건비 등 간접경비의 효율성이 뒤지는 상황에서 자원의 해외의존도까지 지나치리만큼 높아, 선후진국의 중간에서「샌드위치」의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이 중간위치의「애로」를 충분히 간파,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 현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현명함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이것은 국내 화학산업과 관계되는 거의 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파악해도 좋을성 싶다. 기초기술이 그렇고, 고도의 응용기술이 그러하며, 생산성에 직결되는 생산기술 및 운영기술이 그러하다. 여기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력이나 테크니컬서비스는 거의 전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들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자세이다. 우리의 화학기업들이 요즘들어 환경을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과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환경유해론」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환경관계자를 설득하기에는 미흡한, 최우선적 과제가 법적인 제재의 테두리를 벗어나는데 급급한 임시방편식의 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화학산업계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질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국제적인「환경주의」앞에서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즉, 오늘날「환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구상의「인간」의 존재를 어느 선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의 더욱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이면서도 현실인식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이 안이한 자세로 환경문제를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화학산업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잘못 대응하면 세계적인「환경보호론」을 거스르는 사태를 초래, 국제적인 고립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수출이 주종을 이루는 화학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국민의식속에「화학제품=유해제품」이라는 잘못된 등식과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화학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학제품과 화학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올바르게 교정하고「화학제품=유해제품」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식의 근원은 몇년전 두산전자의「페놀유출사건」,「가정용 합성세제의 수질악화」,「낙동강 상수도 오염사건」등 화학산업 및 화학기업들이 근거를 제공한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화학산업계는 국민의식의 저급함을 문제삼는 것보다는, 스스로 화학제품의 필요성과「불가피성」을 홍보해 화학제품 및 화학기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화학경제연구원은 화학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화학제품의 필요성 및 사용 불가피성을 홍보해 화학산업의 존재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을 개최함은 물론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이를 홍보해 국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화학기업 및 환경문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한다.

<화학저널 1995/4/3>